

**서초구가족센터 운영위원회
2025년 4/4분기 정기회의록**

일 시	2025.11.24.(월) 16:30	장 소	본부 4층 열린공간
참석자	신철우 위원장, 이신학 위원, 유성희 위원, 강현정 위원, 김정희 위원, 신은정 위원(代 김경미 팀장), 최호진 위원, 조혜진 위원		
진행 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전회차 회의록 보고주요보고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4분기 주요 사업현황2026년 주요계획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2026년 본예산(안)기타 논의사항		
회의 안건	해당없음		
회의 내용	<p>1. 성원보고 및 전회차 보고</p> <p>신철우위원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다.</p> <p>신철우위원장님의 성원보고 요청으로 9명의 운영위원님들 중 고선강위원님의 학교 일정으로 불참하셨음을 말씀드리고 8명의 위원님을 모시고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p> <p>전회차 2025년 3분기 회의록 내용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영역 및 다문화특성화영역에서 두루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가족상담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상이 확정되었던 내용을 보고드린바 시상식이 12월 2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있어 다녀올 예정임을 보고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했던 서초헤어살롱에서 5명의 미용 필기시험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해내야 하는 실기시험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많이 어려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다</p> <p>2. 센터 2025년 4분기 사업 현황 보고</p> <p>가족사업 안내에 따른 4가지 영역과 네트워크사업, 아이돌봄사업, 운영지원사업의 순서로 보고를 시작하다.</p> <p>[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다함께 하나되는 서초(다하나)사업과 글로벌 아우라 챔버 육아 힐링톡톡, 서울가족학교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p> <p>다하나사업에서는 문화이해교육과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 두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p>		

였으며, 11회기 271명의 아동들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12회기 584명의 아이들에게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조혜진 위원께서 이해교육은 초등생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인형극은 유아기아동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부연설명하시다.

글로벌아우라챔버에서는 10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더하모니'행사에서 오프닝무대로 초빙되어 합주공연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7일 내곡동의 서초느티나무쉼터 아트홀에서 송년 정기 연주회를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2번째 12월 9일 외부공연으로 용인온누리요양원에서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주하는 클래식 공연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025년 서초구의 지원을 받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육아힐링 톡톡 사업으로 12월 6일 하정훈 의사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게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이라는 주제로 정서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620명의 양육자와 100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돌봄을 진행하면서 부모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회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이번 분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변에 소문내주시기를 부탁드리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아버지교실, 청소년기부모교실, 아동기부모교실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9회기 199명의 지역주민과 함께하였음을 보고하다.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다문화초기정착지원사업으로 '밋미'와 'Begin in Seocho'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밋미에서는 9월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차와 다과문화를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한방문화체험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강관리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회기 35명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였음을 보고하다.

Begin in Seocho에서는 발음교정교실, 결혼이민자 며느리를 위한 집단상담, 경복궁에서의 한복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으로 초기정착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이 김장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 김장문화 정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하다.

[가족돌봄영역]에서는 온가족보듬사업 보통의가족 상담사 역량강화지원사업 상시가족상담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온가족보듬사업에서는 취약위기 50가족 204명의 가족들의 자립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아동에게는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보듬매니저 파견으로 418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하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취약위기 가정의 아동이 드림스타트와의 연계되어 가족구성원별 자원연계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역협의체 '희움'에서는 지역사회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자와 함께 다문화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 이해와 제도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가족유형별 사례관리 개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서초구가족 센터가 가족구성원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대상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초구는 세대별·분야별 전문기관이 지역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협의체 운영에 강점을 가진 자치구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 중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내에서 다문화 특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기관 전문가들의 문화적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대상자만이 아닌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실무자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음에 격려하다.

한부모자조모임에서는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진행비로 꽃꽂이, 정리함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유대감 강화 및 자신감 향상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8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하는 모두하나대축제에서 하나의 부스를 운영해봄으로서 자존감 향상 및 한부모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하였음을 보고하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자조모임도 진행하면서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육아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8회기 76명의 조부모님과 함께하였으며, 코리아해럴드 신문 “황금기의 멈춤일까, 새로운 시작일까? 조부모가 말하는 두 번째 부모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해당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보고하다. 이에 김경미 위원은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최신 양육 트렌드와 손주 양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돌봄 이후 조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이어 조부모 대상 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회기 중 한 회기 교육을 통해 양육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유성희 위원이 조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조혜진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과 간단한 간식 제공을 통해 동일한 고민을 가진 조부모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더불어 서초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할 예정임을 부연 설명하였다.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10월 24일 63명의 가족을 모시고 시골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신규로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 송년파티를 진행하면서 한해동안 대상자 가정을 위해 지원해주신 후원자 및 단체에 대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샌드아트와 마술쇼를 통한 정서지원, 레크레이션을 통한 가족들과의 친화문화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보통의가족에서는 멘토링 사업으로 116회기 1:1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서 다문화가족자녀에게는 한국어 능력 및 기초학습 적응향상을 위한 교육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국, 영, 수 학습을 통해 학원비의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렸음을 보고하다. 일상&일탈 프로그램에서는 행복레시피 프로그램으로 소통·생활·추억·활력·나눔·창작활동으

로 가족간의 감정이해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에서 신규사업인 샌드위치세대 지원프로그램으로 조부모를 부양하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모세대를 이해하는 체험프로그램, 자녀세대를 이해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자기돌봄의 주제로 20명의 샌드위치 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온가족보듬사업 '경계선지능가족 지원'프로그램으로 경계선지능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가족 정서적 친밀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신규사업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더불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양육자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보고하다. 이에 강현정 위원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경계선지능 아동의 또래 생활이 힘든 점을 언급하시며, 서초구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 칭찬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시다. 이에 조혜진 위원께서 감사인사를 하다.

가족상담지원사업에서는 상시상담, 온부모집단상담으로 2개의 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하다.. 상시상담에서는 가족상담 최우수사례로 전국에서 서초구와 세종시 2곳만 선정되었으며, 온부모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가족사업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온부모집단상담은 4가지의 파트로 예비사춘기자녀 부모, 사춘기자녀 부모, 임신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 성인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29일 성인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하다. 이에 신철우 위원장님은 서초구가족센터가 한 해 동안 두 개의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성인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서초구 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 비율이 높은 통계적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부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성인자녀와의 자연스러운 분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상담 프로그램임을 부연 설명하다.

서초구가족센터는 상담실 담당 직원이 가족미술치료가 가능하여 2025년 연말을 가족들이 따뜻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정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찾아가는 예술치료와 '미덕'을 주제로 가족예술치료로, 찾아가는 예술치료는 서초구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공 기관을 찾아가 미술 집단상담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부부, 부모자녀, 다문화를 대상으로 미술 집단상담을 통해 가족의 미덕을 발견하는 가족예술치료를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2센터 인스타그램에 홍보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서초구가족센터가 직원들의 개별적 재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였다.

상담실에서는 매 분기 상담사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상담슈퍼비전 및 상담사례회의를 통해 전문가 슈퍼비전 및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역량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고하다.

서초구가족센터만의 상담사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상담사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10월 2

4일 위촉상담사 15명을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담사선생님께서 어려움을 수용하고 반영해주시는 모습에 항상 배려받는 느낌이라는 피드백을 주셨음을 보고하다.

[지역공동체영역]에서는 미라클가족봉사단, 가족연합사업 '서초가족걷기축제',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행복브릿지',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레디 투 서초', 가족사랑의 날, Grow UP Together, 패밀리셰프, 스몰웨딩, 첫페이지사진관,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미라클가족봉사단에서는 환경봉사프로그램에서 친환경샴푸바를 만들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초걷기축제에서 손수건 꾸미기 부스 운영 봉사를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1월 15일 연말 나눔 피날레 프로그램으로 수제청을 만들어 취약위기 어르신에게 나눠드리는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육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가족연합사업인 '서초가족 걷기축제'에서는 110가족 385명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양재천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의 행복을 다시한번 느낀다는 피드백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행복브릿지'에서는 패밀메이커스, 내 몸을 살리는 힐링 레시피, 팜(Fam)ily 힐링데이 프로그램으로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협동력 강화를 통해 가족친화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하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레디 투 서초'에서는 퍼스털 컬러프로그램으로 진로 적성 및 자기 이미지 이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다문화 예비 초등 학부모를 모시고 한국 초등학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하다.

가족사랑의날에서는 축구경기 관람, 김치만들 빚기를 통해 가족간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0일과 11일에 서초가족 20가족을 모시고 트리와 리스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Grow UP Together에서는 사회, 기술, 기능, 예술, 수학을 통해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균관 예절학교를 방문하여 예절과 사회질서를 학습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소통과 리더십 교육으로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음을 보고하다.

양재유치원에 찾아가는 패밀리셰프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서초구의 지원으로 올해 스몰웨딩과 첫페이지 사진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서초구내 다문화가족 1커플이 신청하여 스몰웨딩 비용을 지원받아 10월 18일 결혼식을 진행하였으며,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만삭사진, 출산기념 가족사진 희망자를 사연과 함께 신청받아 15가정에게 가족사진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렸음을 보고하다. 이에 조혜진 위원께서 대상자 중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 난임 과정을 거쳐 현재 출산을 앞둔 임산부, 조부모를 모시는 3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선정된 가족사진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부연 설명하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양육자 상시프로그램과 양육자아동 상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육자-아동 상시프로그램에서는 12월 창의력발달과 신체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품앗이 그룹활동으로 10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그룹활동자를 선정하여 육아FEST A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12월 그룹 구성원을 모시고 전체모임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아빠육아활성화지원사업에서는 아빠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인 서초프렌대디, 육아에 지친 아빠를 위한 힐링대디, 육아방법 및 요즘 양육트렌드를 학습하는 서초트렌대디도 진행한 바 있음을 보고하다.

올해 아빠랑 캠프를 기회하여 11월 7일 저녁부터 11월 8일 오전까지 아빠자녀 67명을 모시고 캠핑을 진행하여,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경험과 신뢰쌓기,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이에 유성희 위원은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아버지와 자녀가 의미 있는 추억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 장소 선정 과정에 대해 문의하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인근 캠핑장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서초구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서초엄마힐링센터]에서는 5가지의 테마 힐링, 엄마, 부모, 가족, 아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H-Day에서는 보시는바와 같이 공간활용 및 자조모임을 하고 있으며, M-Day에서는 요가 활동, 차 문화체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요리프로그램을 21회기 249명의 서초엄마에게 제공해드렸습니다. 또한 도자기 제작 긍정훈육 부모교육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F-Day에서는 피자만들기 컬러접시 만들기, 김밥말기, 산타스쿨 등 체험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D-Day에서는 아빠와 티라미슈를 만들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하다.

[다문화특성화 영역]에서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인 한국어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한국어교육으로 초급반, 중급반, 토픽 자격증반을 51회기 530명의 다문화 및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생을 대상으로 서초 한국어 글마당을 진행하여 글 쓰기 능력에 대한 중간 점검도 진행하고 초등생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한국어 읽기쓰기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음을 보고하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상시적으로 베트남어 통역사가 상주하여 통역 번역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는 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다문화아동 이외에 찾아가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24회기를 서초구내 어린이집을 연계하

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에서는 직접교육과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초구 가족센터에서는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4개국의 다문화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서초구특화돌봄사업]에서는 4분기 서초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139가정 1,701건의 연계를 진행하고 서초119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67가정 279건의 연계를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으로는 399가정 3,620건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보고하다. 올해부터 시작한 안전 문자로 돌봄활동의 안전에 대한 제고에 노력하였음을 보고하다. 손주돌보미를 비롯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모니터링도 1,130건을 진행하였으며, 서초아이돌보미는 이용자만족도 4.5점, 119아이돌보미는 4.7점을 기록했음을 보고하다.

4차 보수교육으로 돌보미 선생님의 수면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연말 '다시나를 돌보다'를 주제로 돌보미선생님께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동료 돌보미와의 만남에 즐거운 시간이었고 힐링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음을 보고하다.

서초손주돌보미지원사업에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손주와 할마할빠가 함께하는 가을 소풍 '풀크닉'이라는 제목으로 40가정의 조부모님과 손주가 참여하여 건강한 교감과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이와 함께 할머니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119명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대규모로 진행하여 무사히 수료셨음을 보고하다. 이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올해 아이돌보미 채용인원에 대해 문의하다. 이에 조혜진 위원님께서 6명의 신규아이돌보미를 채용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11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230가정 4,732건의 연계를 하였으며 현재 150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가지원하는 서울형아이돌봄지원사업도 돌보미 특별교육을 통해 연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및 현장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아이돌보미의 인력확보를 위해 10월에는 4명의 신규돌보미 채용, 11월 12월에도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도 돌봄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문자발송을 올해부터 실시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정년과 관련한 공문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다. 조혜진 위원은 해당 공문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년을 결정하도록 한 사항임을 설명하며,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정년을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차등 운영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다. 아울러 서울시가족센터 센터장 회의에서는 정년 기준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김경미 위원은 정년을 동일 기준으로 운영해야 민원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혜진 위원의 설명에 동의하다. 유성희 위원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부여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고, 조혜진 위원은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보미에게는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이에 유성희 위원님께서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조혜진 위원은 이에 대해, 돌봄활동의 특성상 활동시간·활동장소의 제약,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여러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자원연계 영역]에서는 홍보사업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변경전에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음을 보고하다. 서초구가족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해로 챌린지 이벤트, 홍보물 배포, 지역사회 복지박람회 홍보무스 운영 등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하다.

현재 회원현황은 502가정 1,385명으로 이는 구글폼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숫자가 있음을 보고하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정보 수집 방법이 달라져 회원가입이 많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다.

자원봉사자자는 104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316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봉사자를 모집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025년 11월 19일까지의 후원현황으로 지정후원금 63,644,000원, 비지정 후원금 17,877,290원으로 취약위기가족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로 23,290,000원 지출, 결혼이주여성 취업프로그램 서초헤어살롱 진행비로 34,80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치과 및 정형외과 수술의료비로 2,145,590원이 그로우업투게더 초등생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비로 5,541,17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하다.

4분기에는 6개기관 11종 1,663개의 후원품이 접수되어 취약위기 가족에게 지원해드렸음을 보고하다. 외부기관에서 5건 2,740,000원의 자원을 취약위기 가족에게 연계해드렸음을 보고하다.

2025년에는 총 11건의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어 다양한 가족프로, 시설운영, 전문적인 인력확보, 스몰웨딩프로그램, 다문화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다.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인사부문으로 연차촉진 및 채용, 종사자 근무평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8일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논의 하여, 의자수리, 보관물품 창고 대여를 하여 프로그램실 확보, 종사자 건강관리에 노력하고자 하였음을 보고하다. 회계부문으로 예산(안) 제출과 법인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서초구가족센터의 예산규모로 인해 타 산하시설과 다르게 2일에 걸쳐 법인 종합감사를 수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다. 운영지원 및 시설부문에서는 10월 시설합동점검을 마치고 25년 재물조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직원동정으로는 가족사업 1팀과 운영지원팀 퇴사로 2명의 직원이 입사하고 운영지원팀 행정보조인력이 퇴사하고 입사하였으며, 출산·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채용 예정에 있음

을 보고하다.

이상으로 4분기 진행사항 보고를 마친다.

3. 2026년 사업계획 보고

2026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첫 번째 생명존중 프로젝트 ”귀한 생명 존중받는 생명“을 목표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확대, 조부모부모손주 3세대 공감프로젝트사업 기획, 서초구 아동권리선언 제정으로 안전돌봄 확대, 성장특프로그램을 통한 가족발달론 관점에서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정립, 올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온부모 패키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난입부부 특화상담으로 특색있게 진행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두 번째 가족친화 환경조성 프로젝트 ”온마을 가족공동체“를 목표로 센터의 신규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카카오 채널 활성화, 건강가정 인증사업 확대로 가족상담 우수기관 인증이 만료됨에 따라 27년 인증을 위해 계획하고 있으며, 온마을 가족돌봄 공동체사업으로 지역내 다문화가정과 선주민가정이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가족돌봄 공동체 모델을 심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025년에 이어 서초육아힐링 톡톡도 서초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하다.

세 번째 다문화 어울림 프로젝트 ”함께여서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목표로 서리풀 세계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초야 세계로가자, 서초가족의날 대축제를 새롭게 기획중에 있으며 글로벌아우라챔버가 외부공연을 확대해갈 예정임을 보고하다. 컬러풀 패밀리 사업으로 강점관점 기반 가족인식·다문화인식 개선을 주제로 미술치료 영역을 확대해갈 예정임을 보고하다. 이에 신철우 위원장은 조혜진 센터장 부임 이후 서초구에 필요한 사업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표하였다. 이에 조혜진 위원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초구 가족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고 답하다. 이어 김경미 위원은 2026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혜진 위원은 자치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2026년에도 서초구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가족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설명하다.

4.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보고

서초구가족센터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하여 보고하다.

다문화자녀학습비지원사업 보조금 감소 및 가족상담특화사업보조금 감소에 따른 보조금 6,828,000원이 감소, 지정후원금 25,000,000원 증액, 종사자 고용안정지원 정책 지원으로 법인전입금 15,150,000원 증액,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 실비 이용자수입 증가로 실비 사업수입 218,609,600원 증가, 기타 잡수입 449,400 증액으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252,381,000원 증액한 14,767,56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서초구가족센터 2026년 예산(안) 관련하여 보고하다.

2026년 보조금 가내시 예산 반영, 2025년 공모사업 종료, 2025년 고용안정지원금 종

	<p>료, 2025년 12월말 법인전입금 이월 등에 따른 조정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294,870,000원 감액한 14,472,69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p> <p>5.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 마무리</p> <p>연말 2025년 마지막분기 운영위원회의 인사를 나누시고 2026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일정은 법인 이사회의 일정이 확정되고 운영위원장님과 논의 후 운영위원님들께 안내드리기로 하다. 신철우 위원장님의 폐회선언으로 2025년 11월 24일 8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본부 열린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2025년 4차 운영위원회의를 마무리 하다.</p>
사진 자료	